

제미나이와 밤새 다듬은 나의 투자철학

소개

투자를 하다 보면 스스로 세운 원칙과 실제 행동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는 순간이 자주 온다. 나 역시 비슷한 고민을 반복했고, 이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**AI와의 대화**를 선택했다. 이 사례는 **Gemini와 밤새 주고받은 프롬프트 대화**를 통해 나의 투자철학을 점검하고 구조화한 경험을 스터디 공유용으로 정리한 글이다 😊

이 글의 목적은 '정답인 투자철학'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,

👉 **AI와의 대화가 어떻게 사고를 정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공유하는 데 있다.**

진행 방법

사용 도구

- Google **Gemini**
- 대화 기반 프롬프트 방식

진행 흐름

- 막연한 투자 성향과 고민을 그대로 질문으로 던짐
- 답변을 읽고 동의/비동의 지점을 명확히 언어화
- 다시 질문을 수정하며 사고를 점점 구체화

프롬프트 예시

나는 장기투자를 지향한다고 말하지만,
막상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판단이 흔들린다.
이게 철학의 문제인지, 원칙의 부재인지 분석해줘.

방금 답변이 너무 일반적인데,
내 성향(리스크 회피, 확신 없을 때 관망)을 기준으로
다시 정리해줄래?

이처럼 **대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시 되묻는 과정**을 반복했다.

진행 방법

대화 내용 정리 및 기록 방식

- Gemini와의 대화가 길어지면서, 핵심 생각이 흩어지는 문제가 생김
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**대화 내용을 마크다운(md) 형식으로 정리**하기로 결정
- 주제별로 내용을 나누고, 파일로 저장해 관리함

디렉터리 구조 예시

```
investment-philosophy/
├─ 01_background.md      # 투자에 대한 기본 생각과 문제의식
├─ 02_core_questions.md  # 반복적으로 던진 핵심 질문들
├─ 03_gemini_dialog.md   # 의미 있었던 대화 발췌
├─ 04_principles.md     # 정리된 나만의 투자 원칙
└─ README.md            # 전체 흐름 요약
```

- 이렇게 정리하니, 생각의 흐름이 **문서 구조로 눈에 보이기** 시작함
- 이후 대화를 이어갈 때도 기존 md 파일을 참고하며 질문의 깊이가 달라짐

진행 방법

전자책으로 확장하기

- 정리된 md 파일들을 **안티그래비티(Antigravity) 코딩 베이스**에 그대로 투입
- 문서 구조를 유지한 채 전자책 생성 파이프라인에 연결
- 현재도 **PDF 전자책 파일을 생성 중** (빌드 돌리는 중 😊)

이 단계에서 느낀 점은, - 처음부터 전자책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도 - 기록 방식만 잘 잡아두면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는 것

진행 방법

안티그래비티 파이프라인 개념 정리

아래는 이번에 사용한 **안티그래비티(Antigravity) 기반 전자책 생성 흐름**을 개념적으로 정리한 다이어그램 설명이다. 스테이션들이 그대로 이해하거나 응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했다.

```
[사고 / 대화]
↓
[Gemini와 심층 프롬프트 대화]
↓
[Markdown(.md) 문서화]
- 주제별 파일 분리
- 디렉터리 구조로 관리
↓
[Antigravity 코딩 베이스]
- md 파일 그대로 투입
- 빌드 설정 및 템플릿 적용
```

- ↓
- [PDF 전자책 생성]
- 구조 유지
 - 반복 빌드 가능

이 파이프라인의 핵심 포인트

- 콘텐츠와 포맷을 분리함
- 내용은 md에 집중
- 출력 형식(PDF)은 파이프라인이 담당
- AI 대화 → 기록 → 출판까지 **중간 변환 비용이 거의 없음**
- 한 번 만든 구조를 재사용 가능 (다른 주제, 다른 전자책)

이 구조 덕분에, 지금도 새로운 대화를 추가하면

md 업데이트 → 빌드 → PDF 갱신 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.

스터디 발표용 한 장 요약

한 눈에 보는 개념 다이어그램

AI와의 사고 대화
(Gemini, 심층 프롬프트)

↓

생각의 기록화
(Markdown 파일)

↓

구조화
(디렉터리 설계)

↓

자동화 파이프라인
(Antigravity 코딩 베이스)

↓

지식의 결과물
(PDF 전자책, 반복 생성)

이 사례의 핵심 문장

AI와의 대화를 기록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순간, 생각은 자산이 된다.

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

- AI는 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**사고를 밀어붙이게 하는 촉매다**
- Markdown과 디렉터리 구조는 생각을 오래 쓰기 위한 최소 단위다

- Antigravity 파이프라인을 통해
- 기록은 자동으로
- 결과물은 반복적으로 생성된다

스터디원에게 남기는 메시지

처음부터 책을 쓰려 하지 않아도 된다. 깊이 있는 질문 + 기록 구조만 있다면, 결과물은 파이프라인이 만들어 준다.

이 한 장은 스터디 발표 시 - 도입 슬라이드 - 또는 사례 요약 슬라이드 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.

📌 발표자 멘트 스크립트

🕒 1분 버전 (핵심 요약)

저는 제 투자철학을 정리하기 위해 Gemini와 밤새 대화를 나눴습니다. 흩어지는 생각을 그냥 두지 않고, 대화 내용을 Markdown으로 정리하고 디렉터리 구조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.

그러다 이 md 파일들을 안티그래비티 코딩 베이스에 넣으면서 전자책 PDF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파이프라인까지 연결하게 됐습니다.

이 경험을 통해 느낀 건, **AI와의 대화를 구조화하는 순간, 생각은 자산이 될 수 있다**는 점입니다.

🕒 3분 버전 (스토리 + 설명)

투자를 하다 보면 원칙이 있는 것 같지만, 막상 시장이 흔들리면 판단도 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.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emini와 굉장히 깊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.

단순히 답을 받는 게 아니라, 마음에 안 드는 답에는 다시 반박하고 질문을 고치면서 거의 밤을 새워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.

문제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생각이 흩어진다는 점이었고, 그래서 대화 내용을 Markdown 파일로 정리하고 주제별로 디렉터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.

그다음 단계로, 이 md 파일들을 안티그래비티 코딩 베이스에 넣어 전자책 PDF를 자동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했습니다. 지금도 이 파이프라인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.

이 사례에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. **AI는 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,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만드는 사고 파트너**라는 점입니다.

깊은 질문과 기록 구조만 있다면, 결과물은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이 스크립트는 - 발표 자료 없이 말로만 설명할 때도 사용 가능하고 - 다이어그램 슬라이드와 함께 읽어도 자연스럽게 맞도록 구성했다.

결과와 배운 점

- 투자철학은 미리 존재하는 게 아니라, **질문을 통해 드러난다**는 걸 깨달았다.
-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와 실제 매매 행동 사이의 간극이 명확히 보였다.
- AI는 판단을 대신해주지 않지만, 사고를 끝까지 밀어붙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.

스터디에서 공유하고 싶은 포인트

- AI를 '답변기'가 아니라 **사고 정리 파트너**로 쓰는 방법
- 추상적인 생각을 프롬프트로 구체화하는 과정의 중요성
- 투자뿐 아니라 커리어·학습·의사결정 전반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

스터디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

- 여러분은 자신의 투자철학을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?
- AI와 대화한다면, 어떤 질문부터 던지고 싶나요?

도움 받은 글 (선택)

- 개인 투자 기록
- Gemini 사용 경험 및 공식 문서

이 사례의 핵심 메시지:

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, AI와의 대화는 충분히 '사고 훈련'이 된다 🙌